2025
약침학회 활동지

KPI KOREAN PHARMACOPUNCTURE INSTITUTE 대한약침학회

사단법인 약침학회
Medical Association of Pharmacopuncture Institute

IAM (Innovations in Acupuncture and Medicine)

IAM(Innovations in Acupuncture and Medicine)은 **한의학의 글로벌 연구 발전과 융합을 선도하는 핵심 학술 플랫폼**으로서 BMC 출판사(BioMed Central, Springer Nature Group 산하)를 통해 발간되는 **오픈액세스 국제학술지**로 근거 중심의 한의학 및 의학 연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침학, 약리학, 생리·병리 기전, 한약 및 본초, 통합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포괄하며, **연속 발행(continuous publication)** 방식을 통해 승인된 논문을 신속히 온라인 게재합니다.

Editor-in-Chief
Sang Geon Kim, Ph.D.
Dongguk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Co-Editor-in-Chief
Yukihiro Shoyama, Ph.D.
Kyushu University
Fukuoka, Japan

Deputy Editor-in-Chief
Young Woo Kim,
MD(Korean Medicine), Ph.D.
Dongguk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Scope

Pharmacological applications	Basic and clinical research in pharmacopuncture
Research on herbal formulations and pharmacognosy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mechanisms
Biochemical and pharmacological research	Medical informatics
Innovations in medical devices and biomedical engineering	Examination of policy and educational initiatives in integrative medicine
Development of clinical guidelines in integrative medicine	Acupuncture and related approaches

JoP (Journal of Pharmacopuncture)

Journal of Pharmacopuncture는
대한약침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로 1997년 2월 창간된 이래
약침, 침구, 한의약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논문들을 발행하여
약침학과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 정기발간되며,
double-blind peer review 과정을 거쳐
오픈 액세스 정책에 따라 무료로 공개되는 국제학술지입니다.

• Scope

- **Pharmacology**
  Herbal Medicine, Herbal Formulae, Phytomedicine, Naturopathy, Toxicology, Agricultural Technologies,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Medicinal Plants, Plant Sciences, Foods, Tranditional Medicines

- **Acupuncture**
  Acupressure, Electroacupuncture, Laser Acupuncture, Moxibustion, Cupping

- **Pharmacopuncture**
  Aqua-Acupuncture, Eight-Principle Pharmacopuncture, Meridian Pharmacopuncture, Implant Therapy, Bee venom Therapy, Implant Therapy, Needle Embedding Therapy, Animal-based Pharmacopuncture, Mountain Ginseng Pharmacopuncture

- **Others**
  Chuna Treatment, Veterinary Acupuncture, Related Animal Studies, Homeopathy, Alternative Medicine in Ca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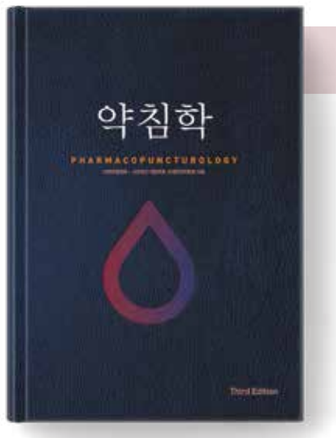
2012년 영문학술지로 전환된 이후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 등재를 목표로
발행일 정시 준수, Full-text HTML 및 PMC XML 제작, 온라인 ESCI 등
주요 국제 데이터베이스 등재를 포함한 질적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저널은 **논문 게재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논문 제출은 저널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www.journal-jop.org

PMC | DOAJ | Google | pubshub | J-Gate | EZ3 | Crossref

약침학 교과서



약침학의 기초부터 임상 실습까지 한 권으로!

- 약침의 역사 및 이론적 기초 정리
- 주요 약침의 효능과 활용법 설명
- 다양한 임상 적용 사례 수록

약침임상실습지침서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실습 가이드 제공

- 약침 시술 과정별 사진 및 자세한 설명 포함
- 치료 목적에 따른 다양한 약침 활용법 소개
- 임상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적 구성

국제학술대회 ISAMS 2025

ISAMS 2025
International Scientific Acupuncture and Medicine Sympos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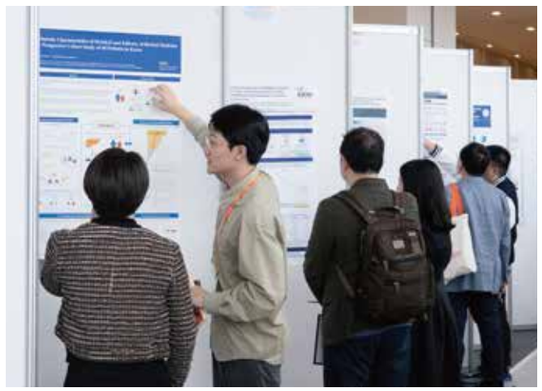
국제학술대회 ISAMS는 한의학을 비롯한 의학 전반의 최신 지식과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엄정한 학술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ISAMS는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의학 현장에서 도출된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적 학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BPEX에서
국제 과학 침술·의학 심포지엄 'ISAMS 2025'를 개최했습니다.
'Wisdom for Innovation and Scientific Evolution of Medicine'
(의학의 혁신과 과학적 진화를 위한 지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 일본 · 대만 · 중국 · 튀르키예 등 국내외 연구자와 임상가 400여 명이 참가하여
AI·유전체·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과학기술과 한의학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며
미래 의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기조발표 ■ 한·대만 공동 침구연구 심포지엄 ■ 한의학 연구성과의 확산 및 활용 전략
■ 질환 관리의 중개 및 임상 전략 ■ 한의학의 디지털 융합 기술 ■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 대사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발굴 및 개발 ■ 학술지 편집자 간담회(IAM, JoP, PIM, JAR, IMR) 등
분야별로 14개 세션이 마련돼 44명 연자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열린 포스터 세션에서는 연구논문 57편과 함께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의
성과 교류회 포스터 43편을 전시하여, 전통의학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하도록 했습니다.



전통 한약재와 최신 분석 기술로 접근한 알츠하이머병 연구

Sung-Ung Kang / Johns Hopkins School of Medicine

ISAMS 2025의 첫 강의자로 나선 강성웅(Sung-Ung Kang) 신경과 교수는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역 반응을 조절할 새로운 실마리로 전통 약재인 어성초의 효능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 진행의 핵심 기전으로 알려진 미세아교세포(Microglial cell)의 비정상적인 활성 및 변화를 제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신 단일세포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어성초 추출물이 뇌 속에서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Bridge cell'이라는 이로운 면역세포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Bridge cell은 질병과 관련된 다른 미세아교세포들의 과도한 활성 및 개체수를 줄이는 비염증성(Non-inflammatory) 특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Bridge cell은 질병을 악화시키는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신경 보호 기능을 이끌어냅니다. 따라서 이번 발견은 퇴행성 뇌질환에서 나타나는 신경 염증을 억제하는 새로운 면역 조절 경로를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성웅 교수의 연구는 전통 한약재 연구와 현대 과학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신경 면역 분야에서 새로운 면역세포 상태를 규명하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나아가 이는 퇴행성 뇌질환을 극복하고 면역 조절 치료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G단백질 신호 제어를 통한 간 질환 치료 기전 규명

Sang Geon Kim / Dongguk University

김상건(Sang Geon Kim) 약학대학 명예교수는 'Gα12 신호축과 대사 조절의 잠재적 표적'을 주제로, 간 섬유화 및 대사성 간 질환을 해결할 새로운 분자 기전을 발표했습니다.

세포 내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Gα12' 물질이 과도하게 작동할 경우 간에 지방이 쌓이고 섬유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연구 결과, Gα12는 간세포에서 불필요한 단백질을 청소하는 '자가포식(Autophagy)'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간 손상을 유발하고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Gα12 유전자 결핍(Knockout) 생쥐 모델은 지방간과 비만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Gα12가 에너지 항상성 유지에 관여함을 시사합니다.

나아가 김상건 명예교수는 특정 마이크로RNA(miR-16)를 활용하여 이 Gα12 신호를 억제함으로써, 간 세포의 자정 작용을 회복시키고 섬유화와 지방 축적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Gα12는 간 손상 상황에서 철분 의존성 세포 사멸인 'Ferroptosis'를 촉진하여 간세포의 운명 결정에도 관여함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독성학적 원리와 최신 분자생물학 기술을 접목하여, 대사성 간 질환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표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가집니다.

전통 의학, 센서 기술과 AI로 표준을 정립하다

Honghao Tang / NODAS Inc

Honghao Tang NODAS Inc. 대표는 중의학의 4대 진단법(망 · 문 · 문 · 절)을 현대 센서 기술과 AI로 표준화한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설진과 맥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소개하며, 우주 정거장에서의 원격건강관리 모듈부터 일상적인 헬스케어까지 적용 가능한 전통 의학의 과학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환경성 물질의 양면성, 독성과 방어의 경계를 밝히다

Yoshito Kumagai / Kyushu University

Yoshito Kumagai 약학대학원 교수는 '전자친화성 물질'이 농도에 따라 독이 되거나 약이 되는 생물학적 양면성을 규명했습니다. 특히 저농도 노출이 오히려 인체 방어 시스템을 깨우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함을 밝히며,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세포 보호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심장 에너지를 지키는 '황(Sulfur)' 대사의 중요성

Motohiro Nishida / Kyushu University

Motohiro Nishida 약학대학원 교수는 심장 내 'Supersulfide'가 에너지 대사를 돕는 핵심 물질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심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물질의 분해를 막는 것이 심근 변형을 억제하고 허혈성 심부전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침(Electroacupuncture)으로 앞당겨진 치주염 회복

Yasemin Cayir / Ataturk University

Yasemin Cayir 가정의학 교수는 만성 치주염 치료에 '전침'을 병행하여 염증 수치를 낮추고 조직 회복을 돕는 면역 물질을 증대시킨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치과 치료와 통합 의학의 접목이 환자의 회복 속도를 효과적으로 높임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약침 교육

25. 01. 11
제 3회 약침서포터즈 - 한의대생 위한 최신 약침 술기 교육 제공

25. 03. 09
제 5회 약침워크숍 - 공중보건한의사에 본격 X-ray 진단·봉합술기 교육 실시

25. 07. 12
제 4회 약침서포터즈 - 초음파기기 활용 근막 치료 및 하이드로다이섹션 등 교육

대전 | 25. 04. 19
보수교육 - 약침술의 자율신경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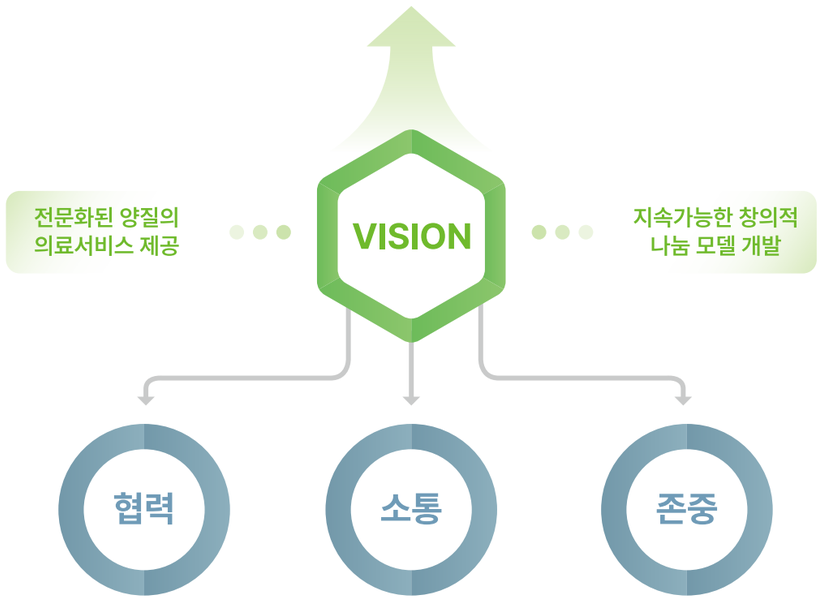
서울 | 25. 08. 30
보수교육 - 목과 어깨의 해부학적 이해와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

굿닥터스나눔단

굿닥터스나눔단
Good Doctors

굿닥터스나눔단은 사단법인 약침학회 산하 사회공헌단체로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주축으로 국내외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의 진료서비스를 진행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지역보건의료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굿닥터스나눔단은 [나누는 기쁨, 행복한 사회] 추구합니다.



후원 안내

사단법인 약침학회는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굿닥터스나눔단의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됩니다.

기부하신 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 확인 가능하며,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	후원 계좌	후원 문의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404-168483 (예금주: 사단법인약침학회)	사단법인 약침학회 02-2658-9051

※ 일회성의 특별한 날(생일, 결혼기념일, 아이 백일 등) 후원도 가능합니다.

봉사 신청 안내

모집 분야	봉사 내용	자격
의료 봉사	의료 진료	한의사 / 의사 / 간호사 등
	진료 보조	간호사 및 의료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일반 자원 봉사	정서 지원 프로그램 및 진행 보조	누구나 가능

[의료 봉사 참여 신청 및 문의처]
Tel. 02-2058-9051 **E-mail.** bongsa9051@gmail.com

권준휘 | 안중한의원 진료원장

필자는 경북 영덕 산불 피해 지역 한의진료소 봉사에 참여했다. 영덕은 부친의 고향으로, 뉴스로 접했던 산불 피해 소식에 마음이 아팠다. 이런 가운데 (사)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이 의료봉사 일정을 조직하게 됐고, 필자 역시 현장에 함께하게 됐다.

자차로 서울에서 대전을 지나 영덕으로 향하던 길, 검게 그을린 산림을 지나며 실제 피해의 실상을 체감할 수 있었다. 장거리 운전의 지루함은 어느새 긴장감으로 바뀌었고, 현장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다.

■ 진료 현장 : 증상의 치료를 넘어, 삶의 이야기까지.. 재난 현장에 빛난 통합한의진료

첫날인 5일, 국립청소년해양센터를 중심으로 진료가 시작되었다. 이재민들이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진료 공간은 굿닥터스나눔단이 전날 테이블과 베드를 분산 배치해 여러 한의사가 원활히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진료 초반에는 근골격계 통증, 불면·불안 등 신경계 증상을 호소하는 고령 환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초기에는 통증 완화를 중심으로 한 진단과 처치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진은 환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보다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옆집 젊은이가 문을 두드려 겨우 대피했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이웃을 업고 함께 도망쳤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이 순간, 환자들은 단순한 진료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재난을 겪은 생존자이자,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있는 ‘국민’이었다. 아픈 부위를 짚어보고도 곧바로 침을 놓기보다는, 몇 차례 더 그 주변을 부드럽게 주무르고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도 불편하세요?”라는 질문은 단순한 증상 확인이 아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방식이었다. 환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치료의 정보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듣고 되묻고 되짚으며, 또 다른 불편한 곳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이후부터는 ‘경청’과 ‘위로’가 치료의 중심이 되었고, 등을 토닥이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건네는 진심 어린 말도 치료의 일부가 되었다.

■ 재난 현장에서 빛난 한의약의 통합 진료 – 약침,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 방문의료의 조화

이번 봉사에서는 (주)FCU의 휴대용 초음파 장비 Acuviz Pocket를 활용하였다. 대형 화면에 연결하여 활용하자 관절, 인대 등 연부조직에 대한 세밀한 영상 확인이 가능했고,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도 시행할 수 있었다. 바늘이 조직 내로 진입하고 약침이 주입되며 근막이 벌어지는 장면을 직접 확인한 환자들은 자신이 받는 치료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다.

PDRN 성분인 연아 약침과 어혈 약침, 통원 약침을 병용하였고 타스컴의 혈액분석기를 통해 현장에서 당화혈색소, 간·신장기능, 염증 수치 등을 즉시 측정할 수 있었으며, 이재민들의 만성질환 관리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은 방문진료와 응급의료 측면에서도 뚜렷한 강점을 보였다. 진료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진료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서 재난 상황 속에서도 끊김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의사의 ‘현장성’과 ‘공공성’을 다시 생각하다

둘째 날 진료는 영덕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임시 텐트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이뤄졌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의사들은 단순히 증상 치료를 넘어 환자와의 정서적 교감에 집중하며 진료의 본질에 다가갔다. 트라우마 평가를 위한 심리 설문과 환자 맞춤형 처방 등,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한의학의 통합적 진료가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절감할 수 있었다. 공중보건 한의사들의 참여는 주로 평일에 집중되었고, 주말에는 인력이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보건소는 공가를 허용하지 않아, 사비와 연차를 사용하며 봉사에 참여한 한의사도 있었다. 우연히도 위로차 이번 현장에 방문한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문제를 직접 전달할 수 있었고, 향후 재난 대응에서 한의사 인력이 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정책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나눔단 활동을 통해 바라보게 된 의료인의 사명

한의사로서 많은 것을 느낀 경험이었다. 일상으로 돌아와 또다시 쳇바퀴 돌아가듯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때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이 단순히 진료실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역사회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진단기기와 한약 제형의 다양화, 초음파 활용, 약침 시술, 심리상담까지… 한의약은 이러한 현장에서 진정한 융합의학이자 총체적 의료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한의약이 공공의료와 재난 의료의 주요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활동을 가능케 한 굿닥터스나눔단과 동료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우리 한의계가 국민 곁에서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힘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수민 | 세명대 한의대 본과 4학년

지난 4월, 경북 영덕 산불 재난지역에서 진행된 의료봉사에 참여하였다. 급히 꾸려진 일정이었지만, 함께 뜻을 모은 본과 4학년 동기들과 굿닥터스나눔단의 일원으로 현장에 발을 디뎠다.

나눔단과의 인연은 2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한의 진료를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한의약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지역사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은 재난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잿더미로 변한 집터, 검게 그을린 산비탈, 여전히 남아 있는 매캐한 냄새. 도로 옆 나무들은 절반쯤 타버린 채 멈춰 있었다. 대피소로 지정된 영덕국민체육센터에 도착하니, 수백 명의 이재민들이 텐트 속에서 일상을 견디고 계셨다. 그분들의 눈빛에는 일상을 잃은 참혹함과 불안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의 진료소는 경상북도한의사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나눔단이 전날부터 함께 힘을 보태고 있었다. 약침, 초음파 진단기, 침, 혈액 분석기 등을 활용해 이재민들의 통증을 덜고, 지친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진료가 이어졌다. 근골격계 통증, 호흡기 이상,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과 불면 등 다양한 증상에 대응하는 진료 과정을 지켜보며, 영덕으로 출발하며 품었던'재난 속에서 한의약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생필품이나 주거 복구가 우선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이재민들의 목소리는 내 판단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를 일깨워주었다. 대피소의 딱딱한 바닥에서 허리를 다친 어르신은 치료를 받은 뒤 "한결 편안하다"며 고마움을 전하셨고, 피로와 긴장 속에 기침이 잦아진 아주머니는 "이렇게 진료받을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닥친다. 이는 의료인이 될 나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현장 중에는 이처럼 극한의 상황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번 봉사를 통해, 의료는 단지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회복을 이끄는 연대의 손길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의료인이라는 사실도 함께 배웠다. 이 경험은 한의사로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환자들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함께한 학우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문승재 학우는 "필요한 곳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했고, 이재연 학우는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실천은 단순한 임상 경험을 넘어, 공감과 나눔의 가치를 직접 체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굿닥터스나눔단이 지향하는 "나누는 기쁨, 행복한 사회"라는 이념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했으며 한의약은 일상의 치료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건강을 지켜내는 중요한 공공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느꼈다.

끝으로 이번 봉사활동과 기고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굿닥터스나눔단, 그리고 경상북도한의사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함께 현장을 지켜준 본과 4학년 동기 문승재, 손예진, 이재연, 이지훈 학우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한의약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길에 계속해서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김진경 |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지역의 문턱을 낮추는 한의 돌봄, 그 안에서 배운 마음의 태도"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지난해 6월부터 (사)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처음 봉사를 신청했을 때만 해도 '내가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접수실에서 지역주민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일은 단순한 안내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다. 이름을 호명하고 눈을 맞추는 짧은 순간, 긴장했던 표정이 한순간 미소로 바뀌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그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다.

굿닥터스나눔단에서 접수와 약제실 보조를 맡으며 "목소리가 또렷해 좋다",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받고 간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이 과정에서 접수라는 업무가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첫 관문임을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굿닥터스나눔단은 의료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 약침을 중심으로 한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한방 과립제를 현장에서 처방해 전달하고, 생활습관 관리 지도와 건강 상담까지 이어가는 활동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정서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단순한 '진료 제공'을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살피는 통합적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지역 한의원, 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며, 한의 의료의 접근성을 넓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그간의 활동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모자가 있다. 지체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방문한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보다 "아들이 아프게 태어난 것이 다 내 탓 같다"며 오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한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고 "어머님, 아드님의 장애는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라고 따뜻히 말하며 마음을 어루만졌다. 이후 조금은 가벼워진 표정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돌아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진심 어린 경청과 위로가 때로는 약보다 깊은 치유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느꼈다.

봉사 현장에서 가장 큰 배움을 준 이들도 바로 한의사 선생님들이었다. 약제실 보조를 하던 어느 날, 한 선생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봉사는 베푼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해요. 환자를 동등한 관계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얻어가는 존재니까요."

이 말은 그동안 '베푸는 사람'이라는 마음 한구석의 오만을 돌아보게 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봉사를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아닌, '함께 배우는 일'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 겸손한 태도야말로 굿닥터스나눔단을 지탱하는 가장 큰 철학이라 생각한다.

굿닥터스나눔단은 의료진뿐 아니라 모든 봉사자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역할은 다르지만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의약이 추구해 온 유기적 치료 철학과 돌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맑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오늘도 나눔의 현장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책임감은 언제나 나를 다시 현장으로 이끌었다.

굿닥터스나눔단은 나에게 한의약의 따뜻한 얼굴을 보여준 소중한 배움의 공간이었다. 이 모든 경험이 가능했던 것은 함께해주신 한의사 선생님들, 봉사자분들, 그리고 믿고 찾아와주신 지역 주민분들 덕분이다. 매 순간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나눔단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누군가의 삶에서 작은 문턱을 낮추는 사람이 되고 싶다.

김소현 | 사단법인 약침학회 사회공헌팀 팀장

사람과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의료의 길

굿닥터스나눔단(이하 나눔단)은 사단법인 약침학회의 사회공헌팀이다. 나눔단은 지난 1년간 전국의 농축산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의 길을 걸어 왔다. 진천, 증평, 원주, 가평은 물론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까지, 우리가 머문 자리마다 의료와 나눔의 풍경이 새로 피어났다. 한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 310여 명이 함께한 봉사 현장은 단순한 진료소가 아니라, '의료가 사람 속으로 스며드는 과정'이었다.

진료를 받은 주민 약 1200명은 대부분 농축산업 종사자나 고령층, 오랜 기간 통증을 참고 살아온 이들이었다. 의료진은 약침과 침 치료, 한방 과립제 처방, 건강 상담을 함께 진행하며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생활습관까지 살폈다. 증평군에서는 군청과 자원봉사센터, 지역 한의원이 손을 맞잡아 한의의료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 영덕군에서는 산불 피해 주민을 찾아 긴급진료와 상담을 병행했다. 의료의 공공성과 연대의 의미를 다시금 느낀 의술과 인술의 현장이었다.

나눔단의 현장에는 세대의 구분이 없다. 한의사와 간호사, 학생, 직장인, 지역 주민이 함께 어르신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웃음을 나눈다. 청년들은 의료가 단지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일'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배우고,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의 손길에 위로를 얻는다. 세대와 직업의 경계를 넘어 서로가 연결되는 과정이야말로 나눔단이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공공의료'의 모습이다.

필자는 나눔단의 실무자로서 현장의 얼굴들을 마주하며 의료가 제도나 시스템보다 먼저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런 마음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미래, 청년이 선도하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과 웰빙 보장(SDG3)'을 주제로 의료봉사 사례를 발표했다.

의료 취약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의료가 단순한 치료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일임을 강조했다. 의료는 병원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 호흡할 때 비로소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현실이 된다.

의료의 본질은 기술보다 먼저 사람을 향한 따뜻한 손길에 있다. 나눔단이 걸어온 1년은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다. 기후재난과 고령화, 농촌의 의료공백이 깊어지는 지금, 의료는 더 이상 병원 안에서 완결되지 않는다.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고, 지역의 삶과 함께 호흡하는 의료만이 지속가능한 공공성을 가진다. 내년에도 그 길 위에서 답을 찾을 것이다.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의료의 그 꾸준한 걸음이야말로 의료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그림일 것이다.

발표 및 학술 공동 참여

UN 세계 청년의 날 국제 컨퍼런스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의의료봉사 역할 제시

지난 8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UN 세계 청년의 날 국제 컨퍼런스'에 (사)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 김소현 팀장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 에스디지유스(SDG YOUTH, 이사장 김주용)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개최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 청년이 선도하다'를 주제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청년의 역할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굿닥터스나눔단 김소현 팀장은 의료취약지 한의의료봉사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의의료의 역할과 민간 의료봉사의 의미를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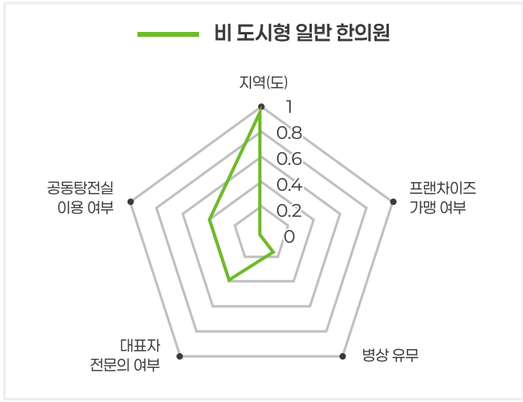
발표에서는 농촌·도서지역 등 현장에서 축적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접근성 부족이 개인의 만성 통증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SDG 3(건강과 웰빙)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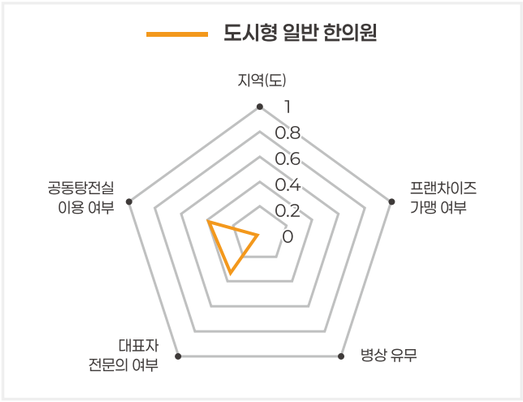
아울러 △건강증진 및 예방 중심 활동 △정신건강 인식 개선 △기후·환경 보건 대응 △국내외 보건의료 봉사 참여 확대 등을 제안하며, 청년이 단순 참여를 넘어 기획자·실천가·연결자로서 지속가능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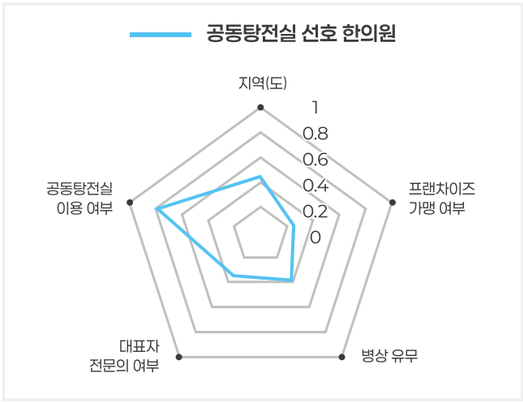
굿닥터스나눔단은 앞으로 국제사회 NGO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한의의료봉사 수행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청년 참여 확대도 이끌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마이크로니들 연구 기업 '테라젝아시아'와 마이크로니들(약침·현대 미세침 기술 융합) 공동연구를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와 개발도상국 대상 저비용·고효율 치료 방안도 모색 중이다.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한 한의원 유형별 특성 연구







사단법인 약침학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신대학교 등이 참여한 산·학·연 공동연구진은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전국 1,648개 한의원) 자료를 분석해 한의원 경영 유형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는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한 한의원 유형별 특성 연구」라는 제목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25년 3월호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한의원을 △도시형 일반 한의원(47.8%) △비도시형 일반 한의원(45.1%) △공동탕전실 선호 한의원(7.1%)의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중 공동탕전실 선호 한의원은 평균 매출이 약 7억 원으로, 도시형 일반 한의원 대비 1.76배, 비도시형 일반 한의원 대비 1.49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해당 유형은 한의사 수, 직원 수, 진료 면적이 가장 컸으며, 첩약 및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 건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원 기간이 길고 전통적 운영 형태를 유지하는 한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을 보여, 한의원 경영의 양극화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연구는 한의원 경영 전략 수립과 한의약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 가능한 기초 실증 자료로 평가된다.

의료봉사

영덕 긴급재난지역 의료봉사 증평군 죽리초등학교 | 25. 04. 06 ~ 04. 07

제 1차 증평군 농촌재능나눔 의료봉사 증평종합스포츠센터 | 25. 07. 06

제 2차 증평군 농촌재능나눔 의료봉사 증평군 죽리초등학교 | 25. 09. 14

제 3차 증평군 농촌재능나눔 의료봉사 증평군 도안초등학교 | 25. 10. 19

제 1차 원주시 희망나눔 의료봉사

원주축산농협 하나로마트 강당 | 25. 09. 28

제 2차 가평군 희망나눔 의료봉사

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 | 25. 10. 26

제 3차 진천군 희망나눔 의료봉사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 25. 11. 09

대한약침학회 / 사단법인 약침학회

정회원 혜택 안내

회비	개원의 · 봉직의 · 대학교수	공중보건의 · 수련의 · 군의관
입회비	**20만원 (입회 시 1회 납부)**	
입회시 혜택	 회원증 & 액자 (A3 스페셜 금박 용지 & 고급 원목 액자)	• 대한약침학회 보수교육 할인 • 학술지 출간 시 저널 레터 발송 • 약침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무료 시청
연회비	**20만원 (매년 납부)**	※ 재직기간 동안 연회비 납부 없이 입회비 납부만으로 정회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연회비 납부 혜택	• **AJ탕전원 26만 포인트 제공** • 대한약침학회 보수교육 할인 • 학술지 출간 시 저널 레터 발송 • 약침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무료 시청	
입금 계좌	국민은행 845701-04-043331 / 예금주 : 대한약침학회	

가입 및 기타 문의

- (사)약침학회 홈페이지(www.mapi.or.kr)에서 회원가입 해주세요.
- 휴면 회원의 경우 연회비(20만원) 납부 후 혜택이 제공됩니다.
- 영수증 출력 및 문자 수신 거부는 (사)약침학회 홈페이지 내 회원 →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02-2658-9053

KPI KOREAN PHARMACOPUNCTURE INSTITUTE 대한약침학회

사단법인 약침학회 Medical Association of Pharmacopuncture Institute

AJ 탕전원

대한약침학회

사단법인약침학회

KPI KOREAN PHARMACOPUNCTURE INSTITUTE 대한약침학회

사단법인 약침학회
Medical Association of Pharmacopuncture Institute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91 대한한의사협회 4층